

수신 : 전국 지역 교회

발신 : 시흥시화교회 / 지금은 은혜시대 010-5210-4004

제목 : 『소풍 오셨습니까?』 책자 발송 안내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사랑하는 지역 교회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소풍 오셨습니까?』라는 작은 복음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강원도 동해에서 만난 한 모친님과 복음 상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의 사고로 막내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절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기도하던 중 제 마음에 ‘소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우리 인생은 소풍과 같습니다. 소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비를 맞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모친님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소풍’이라는 비유가 죽음 앞에 선 분들에게 두려움만 주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집과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복음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거절했던 분과 평생 우상을 의지했던 분, 임종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을 믿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 책이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 요양원·요양병원·호스피스 병동 어르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와 전도자, 원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의료 관계자들의 손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접 읽기 어려운 분들은 책에 안내된 **오디오북**  을 통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기 힘든 어르신이나 환자에게 오디오북을 들려주시고, 들은 뒤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책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책과 오디오북이 어느 병실과 요양원, 가정에서든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은혜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6:2